

억달빌딩(億達 大廈)

Eok Dal Building Plan

허정도 / 건축사사무소 서진
by Heo Jeong-Do

1993년 여름.
한달간의 여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흔히 여행사나 단체가 주관하는 정해진 일정과 코스에 의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다녀보기로한 약간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요녕성 대련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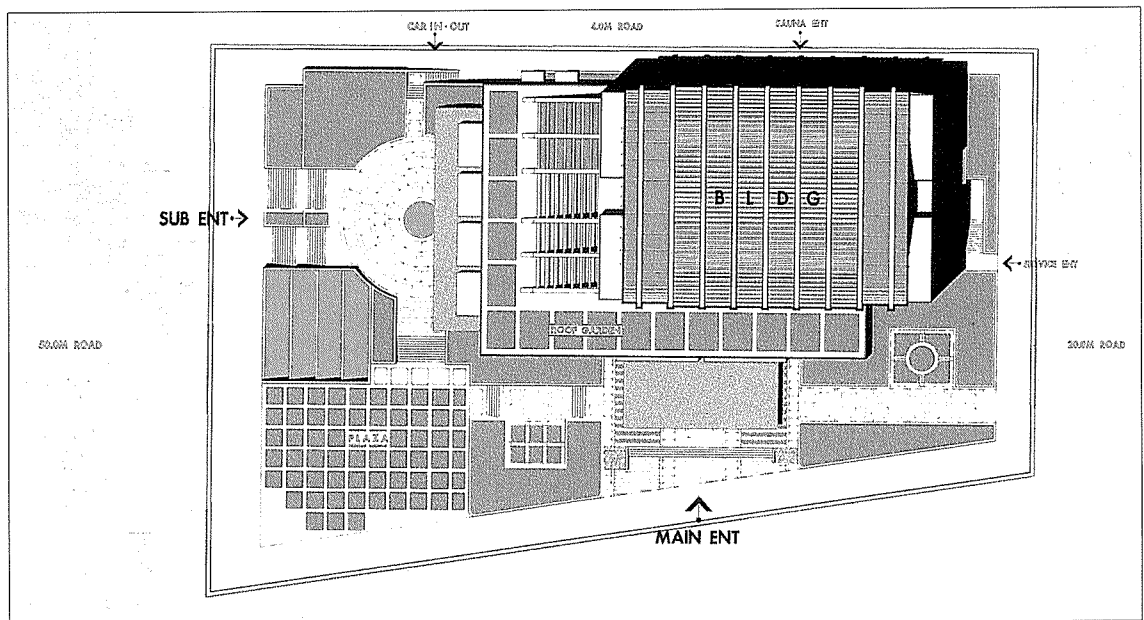
건축가故 이천승 선생께서 1938년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회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실시설계와 공사감독까지 직접 담당하고 스스로가 당시 자신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회고 하였던 대련역 청사가 지금도 시내 중심지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북방의 홍콩」을 꿈꾸는 도시. 밀개는 고구려땅이요, 북으로는 장수 양만춘이 당 태종을 막아낸 안시성이 지척이며, 외침에 대해해 고구려 사람들이 쌓은 천리장성의 기착점이기도한, 비록 지금은 남의 땅이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던 도시.

길림성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조선족이 제법 살고 있어 시내 중심가에 조선족 문화관까지 지어져 있을 정도로 우리민족의 흔적이 자세히 보면 도처에서 발견되는 도시다.

필자가 이렇게 대련으로 무작정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살고 계신 형님의 배려였다.

영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자의 형님은 당시 오십대 후반의 부인과 전문의로서 소수민족으로는 아주 드물게 북경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로부터 그곳 대련시 부산병원(婦產病院)에 배정받은후 무려 삼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를 해 오신 분이므로 당시 그 병원의 교수급 주임의사이자 원장이셨는데 그분의 요청인 즉 “직장에 분배되어 지금까지 번번히 쉬지도 않고 내내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휴가다운 휴가를 얻어서 동생내외와 우리 부부가 함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중국 곳곳을 다녀보았으면 좋겠다.” 는 것이었다.

정말 그해 여름은 넉넉하고도 즐거웠다.



배치도

물론 그때까지 중국땅에서 필자가 건축활동을 하게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아니, 할 필요도, 할 방법도, 할 생각도 없었다.

인천항에서 한중간 여객선을 이용, 산둥반도의 위해(威海)를 경유하여 다시 중국의 국내여객선을 이용, 대련까지 가는 도중의 그 아름다웠던 낭만적 풍족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 십 시간의 만주횡단 기차여행, 삼층 침대 열차의 덜컹거림과 처음 배운 중국식 카드놀이의 즐거움, 무료로 제공되는 차수(茶水)보온병, 시끄러운 중국말 속에 간간이 들리는 함경도 사투리, 차창밖에 보이는 끝없는 지평선과 강낭 이발.

백두산 중턱 벌목로변 야생잣나무 수해속에서 벌보다 큰 모기와 함께 먹던 점심도시락, 은하수가 손끝에 닿았던 고지 백하(白河)에서의 하룻밤, 사방백리에는 사람이 살것같아 보이지 않던 어느 산중에서 고장나버린 Beijing Jeep 때문에 황당했던 기억들...

“중국여행 이야기라면 나도 일가견이 있소” 할 만큼 사건도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던중, 귀국을 일주일쯤 남긴 어느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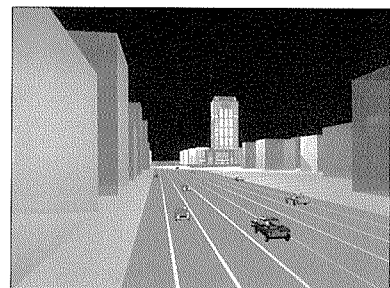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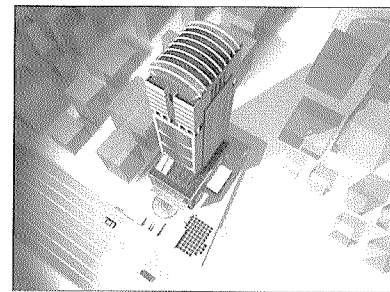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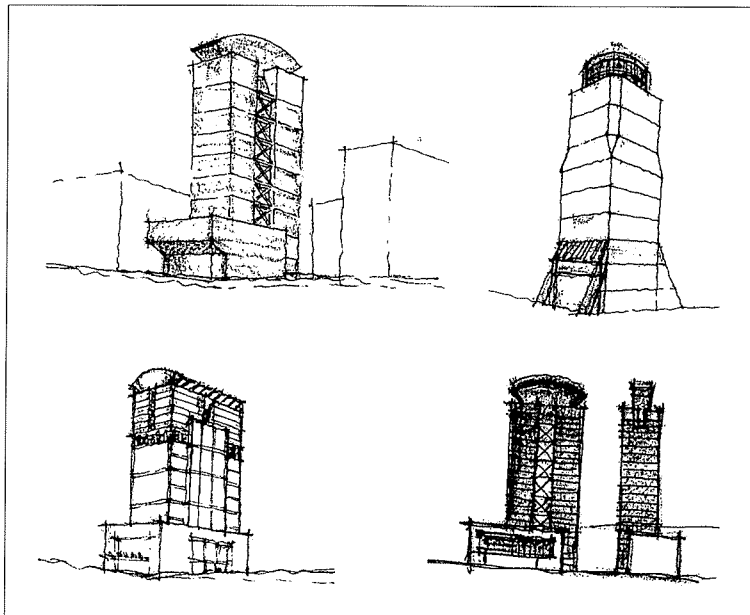
필자는 형님께 이곳 대련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중국 건축계 사정을 좀 알고 싶다고 부탁했고 그 부탁은 어렵지 않게 주선되었다. 「大連市 建築設計院」. 이곳이 내가 건축을 통해 중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첫장소였다.

설계원의 胡秀金 원장, 孫琦 부원장, 고급건축사 陳由城 선생, 고급공정사 鄭官振 선생, 그리고 대련공과대학 건축과 李梯梯 교수 등 대련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분들의 연령은 대개 형님과 비슷했다.



설계원을 둘러보고 대학에도 가보고 그리고 두나라의 건축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견해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가진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얼마 안있어 중국대학의 건축교육이 5년제로 바뀔 것이라는 것과 한국과 비슷한 성격의 건축사(建築師)제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Post Modernism이 어느정도 파급되고 있느냐는 질문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다음 날, 전날의 호의에 대한 답례로 나는 그분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으며 이를 후 그분들이 초대에 대한 답례로 마련한 저녁식사를 다시 같이 하게 되므로써 처음에 서먹서먹했던 우리들의 관계는 점차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식사중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두나라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내가 평소 몇 권의 책을 통해 알고 있던 중국현대사와 인물들에 대한 조그만 상식이 그분들과 내가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에게 잘알려져 있는 중국내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물론, 닥터 노먼 배슨, 아그네스 스메들리, 에드가 스노우 등 중국과 관련이 깊은 외국인들과 '번신(翻身)을 비롯해 '중국의 붉은별' '한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 등 내가 읽었던 몇권의 책, 그리고 대장정과 홍군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옮겨지면서 우리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달혀져 있었던 중국 현대사를 대충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나를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 보기까지 했다.

그 장면에서 뜬금없이 胡 원장께서

“허선생! 중국에 설계 한 번 해볼 의사 없어요?”

“에-에?”

“아- 중국에서 설계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말이요”

“에- 너무 뜻 밖이라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한 번 생각해 보시요”

나는 그제서야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득 들어

“내가 설계를 직업으로 하는 젊은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여건 주어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천히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략 이 정도로 그날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여흥은 즐거웠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졌지만 일 이야기는 더이상 나누지 않았다.

이후 4년간, 나는 여러차례 중국을 왕래했다.

물론 일 때문 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갈때마다 이분들을 만났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업무와 관련한 시도들이 있었다.

외국인 전용 집합주택 단지, 대련시 음악당, 중심상업지구내의 대규모 빌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만만디(慢慢的)라고 하더니만...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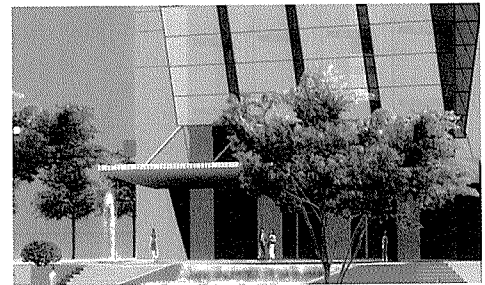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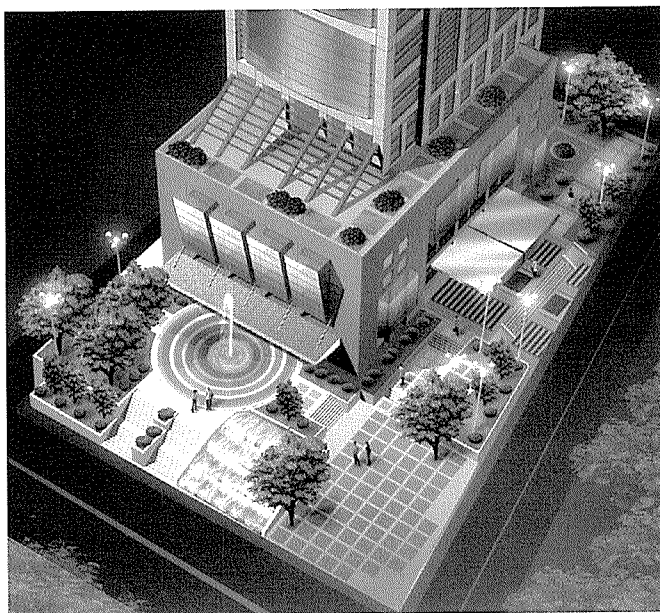
그러던 중, 올 봄.

전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급히 중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일의 내용인 즉,

億達이라는 대련시의 비종있는 중견 집단(그룹)의 사옥 현상공모에 지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던 나는 쾌히 승낙하고서 곧장 중국으로 날아가 설계지침과 함께 건축예정 부지로 안내한 건축주 측의 설명을 듣고, 그날로 돌아와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내의 설계사무소 세군데, 미국에 있는 사무소, 그리고 우리 사무소까지 모두 다섯군데에서 응모한 본 작업은 기간이 한달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 바쁘게 진행되었다.

책상 위에서 덩굴던 案은 보름만에 대략 완료되고, 이후 보름동안 직원들의 손에 의해 표현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상설계란게 원래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번 일은 특히 더 바빴던 것 같았다.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이미지와 대련의 Land Mark 역할을 기본목표로 하여, 특히 밤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



으며, 다양한 표정보다는 강하게 통일된 형태로 가야 된다는게 기본개념이었으며 첨두의 모양은 약간 상업적이긴 하지만 億 達 집단의 표상인 일출을 조형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7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경, 드디어 작업을 모두 끝 내고 포장까지 마쳤다.

다음날 낮 12시 반에 출발하는 서울 - 대련간 중국 북 방항공 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출발 당일 아침 첫비행 기를 이용해 서울로 가기로 했지만 마침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못해 월요일 아침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날밤 우등버스편으로 마산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손상할 우려 때문에 몇 부분으로 해체시켜 손가방에 나누어 들고 들어간 모형을 조립해 놓고 두어잔의 백주와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낸후, 다음날 아침 10시경, 億 達 집단의 회의실에서 형님께서 해주시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가 며 두어시간에 걸쳐 건축주 측에 설계내용을 설명했다.

비교적 호의적인 표정을 확인하면서 다함께 점심식사 까지 마치고 자기들의 다른 Project에 대해서까지 가볍게 의견을 교환한 후 나는 그들과 헤어졌고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7월 말.

그러니까 계획을 제출하고 돌아온지 20일 쯤 지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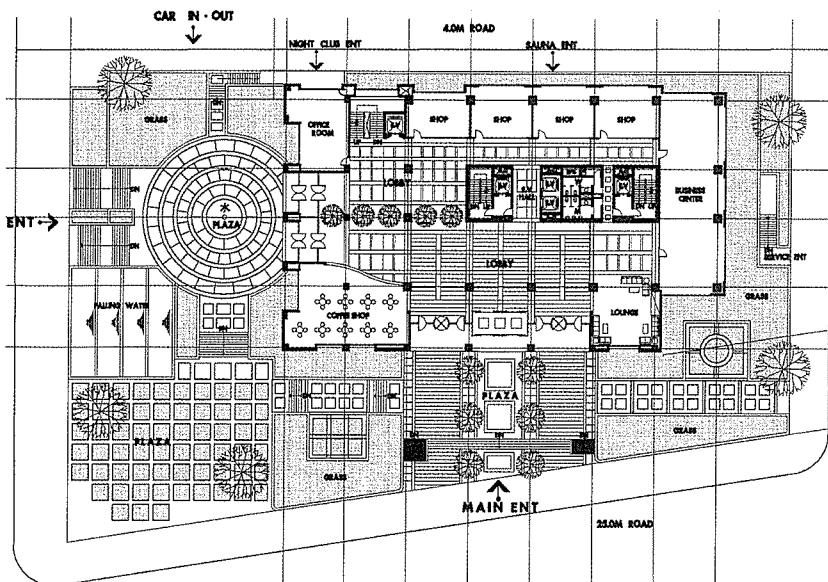
다른 案들은 모두 탈락되고 우리 案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간부회의에 상정될 것이며 아마 불완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무실의 분위기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아깝싸! 다시 보름쯤 후.

대지조건이 바뀔지 모르며 그렇게 될 경우 재응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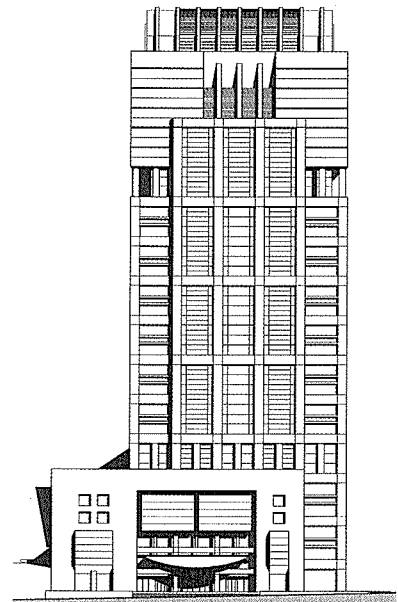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FAX가 한자로 선명하게 사무실로 전송되어 들어왔다.

물론 변경사유는 전적으로 자기들 책임이므로 지난번 계획안 작성 때 든 비용은 어느정도 보상해 줄 생각이며 대지를 두배 정도 키워 상업용과 주거용이 섞인 몇동의 건물로 계



1층 평면도



북측면도

획이 바뀔 것 같으니 그렇게 되더라도 꼭 다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노라는 내용이였다.

며칠 후, 나는 복합건물이 지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내 연락을 받은 그들은 즉시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해 줄 수 없겠느냐는 연락을 해왔는데 시일이 지나 이력 저력 9월을 맞았지만 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겠지만 전력을 다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참 맥빠지는 일이다. 내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그것 뿐이다. 특히 이 작품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먹어 왔던 일이라 설계의 내용에 대한 잘못을 떠나서 남달리 애정이 깊다.

사실 포화상태이다시피한 한국의 설계사무소 현실 속에서, 밖으로 뛰쳐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적 체험이 나의 지적호기심을 채워주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한 나의 건축행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주위에서는 격려 반에 걱정도 반이다.

“중국사람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더라.”

“중국가서 사업한 사람치고 돈 번 사람 없다더라.”

“중국의 설계비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게 싸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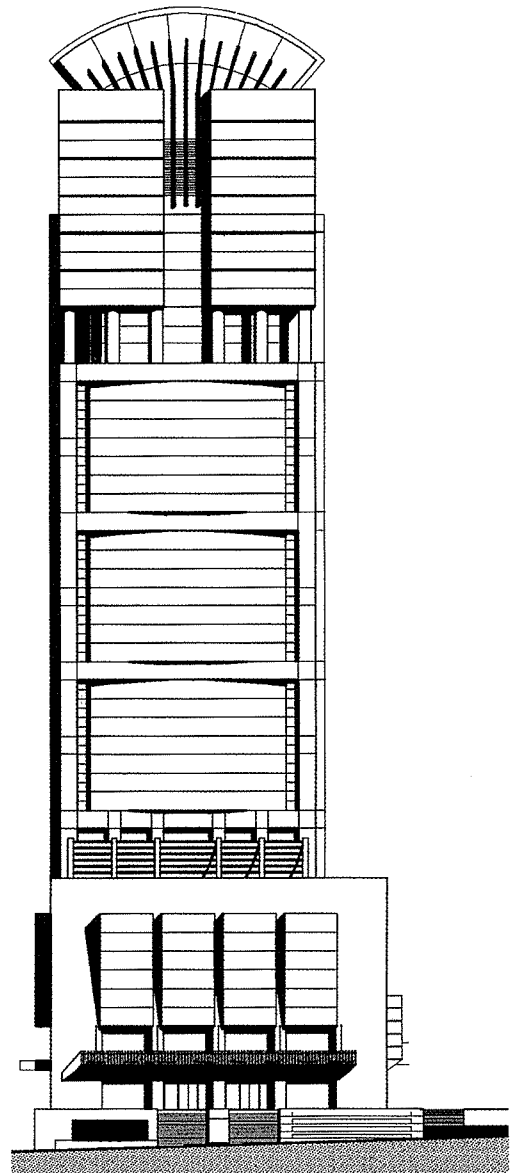
“○○○ 씨가 중국 일 때문에 아주 어렵게 되었다더라.” 등등.

며칠 전에 있었던 친구와의 대화 한토막.

“여기서 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왜 꼭 중국까지 가서 설계를 할려고 하느냐? 왜?”

“아는가? 혹시 십년쯤 후에 내 아들 딸이 중국에 배낭 여행 하던 중에 ‘야! 저 건물, 우리 아버지가 설계한 것이야 알아?’ 하며 동행자에게 어깨라도 한 번 으쓱덜지? 또 하나. 남의 나라에, 그것도 대륙에, 내 작품을 남겨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응?”

대지위치	中國 遼寧省 大連市 黃河路 東北路 民政街 正仁街圍 合地挾
대지면적	4,784.23 m ²
건축면적	1,776.80 m ²
연 면 적	34,306.29 m ²
건 폐 율	37.14%
용 적 률	605.97%
규 모	지하2층, 지상26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착색유리
설계담당	강준규, 이정준, 구경희, 송지현+ HAN SOL C.G STUDIO



동측면도

